

# 혼연일체가 되어 두채산업 발전에 앞장서자



"두채산업 발전과 고품질 원료 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석구 (사)대한두채협회 신임회장은 밝혔다.

송석구 (사)대한두채협회 5대 회장은 지난해 8월 3일 취임식을 갖고 "양질의 원료 확보와 콩나물 재배사 난방용 기름의 면세유 적용 및 협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주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송 회장은 무엇보다 "1,000명의 회원들이 안심하고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품질 원료 콩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회원사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non-GMO 콩을 사용하는데 콩나물 재배에 다소 부적합한 콩이 있어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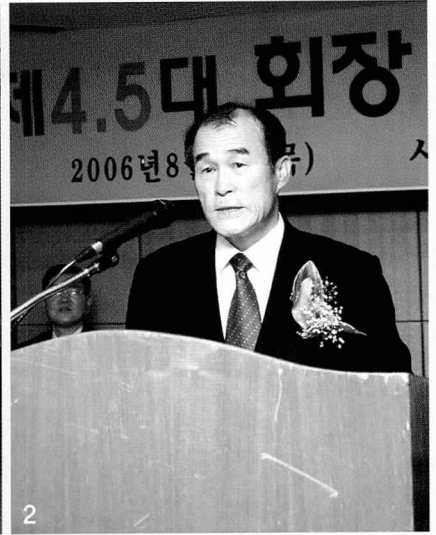
2006년 6월 15일 교통회관에서 가진 제14차 임시총회 및 제5대 회장선거에서 송석구 회장이 당선되었다.

### “협회 운영을 투명화하고 종자콩 확보에 주력할 터”

특히 격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회 운영을 투명화시켜 회원의 결속력을 다져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송회장은 급변하는 세계무역 전체의 흐름에 부응하여 앞으로 2~3년의 시기가 우리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다음 여섯 가지 실천의지를 밝혔다.

첫째, 협회의 행정과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둘째 안정적인 종자콩 확보, 셋째 협회 사무실 마련과 회관 건립, 넷째 협회 임원은 회원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며 두채산업의 비전과 정책을 창출, 다섯째 콩나물 소비촉진을 위해 식품공학과 교수나



1,2,3 8월 3일 가진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송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들은 두채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함께 다짐했다.

요리전문가를 초빙하여 TV나 매스컴을 통해 적극 홍보, 여섯째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기금 적립 및 직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유류난방을 값싼 농업용 전기난방기로 대체하는데 힘쓰는 등이다.

이에 앞서 (사)대한두채협회는 지난 2006년 6월 15일 잠실교통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제5대 회장에 송석구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송석구 신임회장은 30년간 두채업에 종사해왔고 (사)대한두채협회의 대전지부장과 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당시 제5대 회장선거 후보로는 송석구 신임회장(기호 3번) 이외에도 이금산 다전원 대표(기호 1번)와 유왕렬 전 회장(기호 2번)이 출마하였다. ㉞